



대인시장 방동창고에서 열린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신기한 듯 작품을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냉동창고 안 전시만으로도 색다른데 만지고... 들춰보고... 심지어 먹기까지

15일까지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 느티나무숲 '배추와 고등어'전

예술이 항상 고상한 것만은 아니다. 낚성을 번기가 마르셀 뒤샹을 만나 그 유명한 작품 '샘'으로 탄생했다...

안. 여는 전시와는 다르게 관람객들이 출품작을 만지고, 들춰보고, 심지어 먹기까지 했다.

은 작품을 둘러보면서 "이런 것도 작품이 되는구나"며 즐거워했다. 전시 장소 자체가 특이하기도 했다.

꾸었다. 이번 전시에는 고재근, 김경자, 김단화, 김성우, 김탁현, 박문중, 박성완, 도도공방, 신양호, 신호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윤남웅씨 등 대인시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의 숨어있는 여행거리' 공모

교육문화공동체 '결'

아동·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교육문화공동체 '결(대표 민문식)'이 오는 17일까지 '광주만의 숨어있는 감성여행거리' 기획안을 공모한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홈페이지(www.gyeol.org)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해 우편접수(광주시 남구 월산동 70번지 3층)하거나 e메일(soosanghan@empal.com)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장 합격자 없어

후보자 4명 모두 불합격... 국제적 감각 갖춘 전문가 찾기로

광주시가 차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의 직급을 높여서라도 국제적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찾기로 했다. 시는 9일 "시청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지난 8일 시립미술관장 공모에 참여한 4명에 대해 면접을 했으나 적합

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광주시립미술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현 박지택 관장을 당분간 유

안중근의사의 생애 재조명 창극 '안중근' 앙코르 공연

오늘 문예회관 대극장

일제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창극 '안중근'이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앙코르 공연된다. 광주시립극단(단장 송순섭)은 제41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창극 안중근'을 무대에 올린다.

등에서도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1막에서는 안의사의 유년 시절과 하얼빈 거사 모습을 보여주며 2막에서는 의거 직후 위순 검역과 법정에서 당당하게 일제에 맞선 안의사의 모습을 조명했다. 송단장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최종민씨가 대본을 썼다. 또 김홍승·채향순씨가 연출과 안무자로 참여했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문의 062-510-93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발디의 '사계' 전곡 감상

광주시향 11일 문예회관

비발디의 대표작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은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사계' 전곡을 공연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 중 하나인 '사계'는 '올드보이' 등 영화와 CF 등에도 삽입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휘는 임흥규 부지휘자가 맡았으며 협연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경민이다. 빈 트리오 멤버와 앙상블 포럼 21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현재 한국콘서트바타리 관현악과 교수



<임흥규> <김경민>

Musical advertisement for 'MAMMA MIA!'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singing and text about the performance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이앤지 특수방수주'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Advertisement for a fortune-telling service, featuring the text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星谷傳統文化研究會'.